

## #1. 폰부스



따르릉!  
따르릉...릉!  
따르...르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곧이어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익숙한 그 음성이 내 귀에 박혀요.  
그리곤 당신이 말하죠.

“어디예요? 아직 영국에 있어요?”  
“네, 불행히도 아직은 멀리 있어요.”

가끔씩 불통과 먹통을 오가는 전화기에 우리의 소통을 위해  
1파운드짜리 동전 한 닢을 전화통 안으로 또르르륵 굴러 넣어요.

“내 말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마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날 사랑해 주어서 더욱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마이 베이비.”

뚜뚜뚜... 뚜, 뚜-우.

주머니에 동전이 다 떨어지고, 광장의 나뭇잎도 바람에 떨어지는 요란한 날씨,  
나는 당신과 쉽게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요.

오늘도 나는 폰부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행여나 당신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을까 해서요.

**Photo Letters from Norwich**  
*Written by Shin Jung Keun*  
*Photos by Shin Jung Keun*  
*Translated by Mattho Mandersloot*

1. Phone Booth

Trrrrring!  
Trrrrriing!  
Trrr... Trrr...

The ringing of a phone reverberates around me  
and then I hear a recognizable voice.  
It is your voice that enters my ear.  
You say:

“Where are you? In the UK still?”  
“Yes, unfortunately I’m still far away.”

To stay on the line I slide a one pound coin with a *clink*  
Into the slot of the machine, as it sometimes cuts out or goes haywire.

“Can you hear me?”  
“Yes, I can hear you. As if you were standing right next to me.”  
“I’m glad.”  
“And I’m glad that you love me.”  
“I love you, my baby.”

Tuutuutuu... Tuu, tuu-uu.  
I’m completely out of coins, the trees around the square are running out of leaves  
and we’re out of touch, or at least physically so.  
That’s why I call you so often.  
Today, too, I walk slowly past every phone booth.  
Hoping you might ring.

## #2. 안개 가득한 아침에



안개 낀 이른 아침,  
나는 일찌감치 도시를 걸어요.  
아직은 모두가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토록 고요하고 조용한 도시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 빌딩 숲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자욱한 안개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노리치 대성당의 실루엣이  
마치 당신을 닮았어요.  
울곧이 서 있는 대성당의 첨탑처럼,  
당신은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강한 신념도 있고요. 주일이 되면 당신의 그 당부가 떠올라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일요일엔 꼭 교회에 가세요. 알겠죠?”

## 2. Foggy Morning

Shrouded in an early morning fog,  
I'm walking through the city.  
At this hour, everyone has yet to leave their bed.  
It's been a while since I last saw a city this quiet and peaceful.  
There's no comparison with the apartment jungle that we called home.  
The silhouette of Norwich Cathedral, vaguely visible through the thick fog  
somehow reminds me of you.  
Just like its steeple standing tall,  
you carry your faith more deeply than anyone.  
And your belief is strong. Every Sunday, I think on what you asked me to do.

"Wherever you are, on Sundays you go to church. Okay?"

### #3. 조각난 퍼즐



여행은 그런 가봐요. 어느 하나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가 않네요. 그레이트 야머스. 노리치보다 조금 작게 느껴지는 이 해안가 마을에서 결국 바다는 눈곱만큼만 보고 돌아가요. 11월의 비수기, 외지인이 찾지 않는 해변은 쓸쓸함 그 자체예요. 더구나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모래사장을 몇 걸음 걷다 그만 포기하고 말아요. 사실 그게 바다였는지, 하늘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보이는 모든 게 다 회색이어서.

저 바다 어딘가쯤에 당신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바다 반대편 당신의 여름이 이글대는 그곳이 몹시도 그리운 날이에요. 못 말리는 영국의 날씨 덕분에 어긋나고, 소실된 퍼즐 조각처럼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어느 화요일에 써요. 부디, 우리의 삶은 아주 조금만 어긋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 3. Jigsaw Puzzle

There's something about travel. It never turns out the way you imagined, never goes according to plan. Great Yarmouth. In this coastal town, which seems a little smaller than Norwich, I only gaze at the sea for the briefest of moments before going back. This stretch of shore that hardly any tourist comes to visit, let alone in low season, embodies cheerlessness. Also, just when I dip my toes in the sand, the weather takes a turn for the worse, so I decide to turn around. Truth be told, I can barely tell where ocean ends and sky begins. Everything I see is greyness.

You must be somewhere in that direction, way out across the sea. I miss it that place,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where summer rages on. What with this ever-drizzling UK weather throwing me off, I feel out of sorts, like a puzzle with a missing piece, as I write you this Tuesday. Please, I earnestly pray for our lives only to be thrown off course a tiny bit.

#### #4. 수취인불명



빨간 양초처럼 서 있는 이 녀석은 우체통이에요. 사람은 아니지만 우체국을 위해 일을 하죠.  
이 차가운 철기둥 안에 사람들은 손으로, 컴퓨터로 편지를 써요.  
노리치에 사는 방글라데시 이민자는 그들의 언어로 고국에 편지를 보내요.  
노리치에 사는 중국인은 한자를 적은 종이를 통 속에 넣어요.

나는 망설여요. 내가 한국어로 편지를 쓰면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나는  
영어와 당신의 모국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적절히 섞어서 편지를 써요. 서투르고 어눌한 문장  
으로 종이를 채워나가요. 아무래도 가장 자신 있는 문장은,

I LOVE YOU + AKU CINTA KAMU

그렇게 아직 부치지 못한 편지가 마음속에 한가득이에요...



#### 4. Recipient Unknown

This thing here, towering like a red candle, is a postbox. Though not human, they work for Royal Mail.

Inside this cold, iron pillar, people write letters by hand, by computer.  
Bangladeshi migrants living in Norwich send letters in their mother tongue back home.  
Chinese residents of Norwich drop letters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box.

I hesitate. Unsure whether you'll understand a letter fully written in Korean, I mix a fair amount of English with a bit of your mother tongue, Indonesian. I jot down clumsy and fumbling sentences, until the page is full. But there is one sentence I feel confident about:

I LOVE YOU + AKU CINTA KAMU

The letter, which I have yet to send, fills my heart to the brim.

## #5. 쌓이는 건 낙엽만이 아닌 것을



노리치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그 양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낙엽을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아마도 치우면 또 쌓이게 될 게 뻔하니까 그런 거겠거니 생각해요. 이스트앵글리아 대학의 잔디밭에도 낙엽이 많이 쌓였어요. 더 이상 치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곳에 모아두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물에 젖은 그 수많은 낙엽들을 보고 있노라면 쌓이는 건 낙엽만이 아니란 생각이 문득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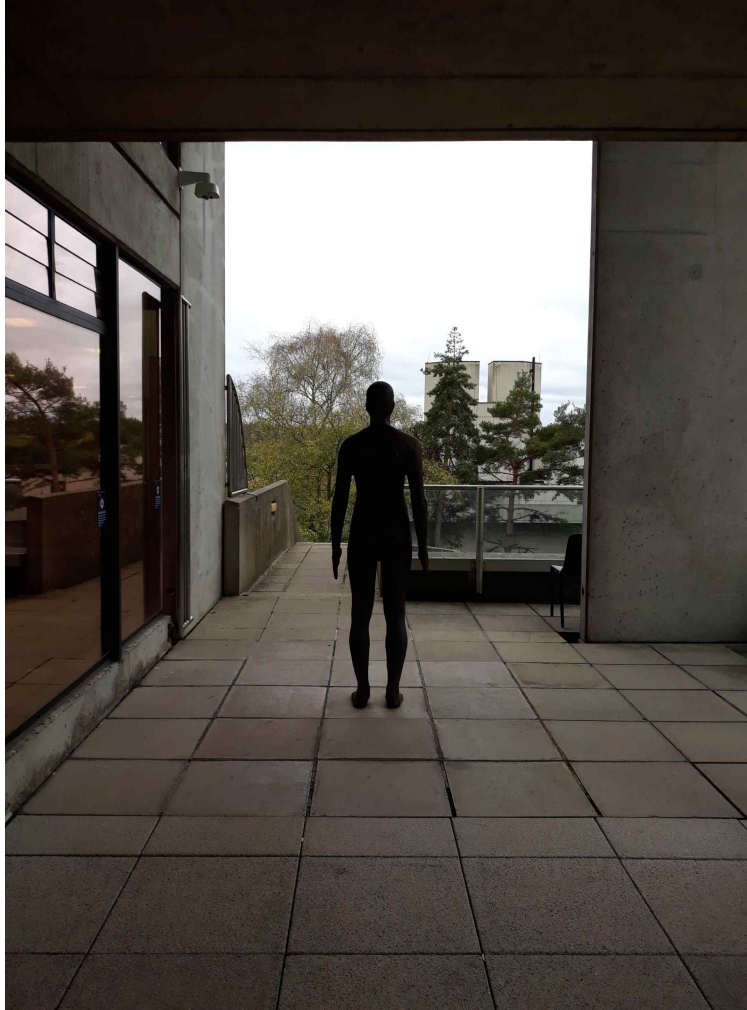
수십 개의 국경을 가로질러 멀리 있는 당신에 대한 나의 그리움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 깊이 쌓여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서 빨리 11월이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과 그 반대편에는 훗날 이 도시에 대한 그리움도 그만큼 짙어질 것만 같은 아쉬움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 날마다 그리워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짓누르며 길 위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꾸욱 밟아요.

## 5. Not Only Leaves Heap Up

The leaves, big and small, are still falling from their branches here in Norwich. When it rains or the wind is particularly strong, it's impossible to guess how many. Maybe that's why no one even thinks of cleaning them up. I guess they know that however much they clean, many more leaves will fall, anyway. On the grass patches of the University of East Anglia, leaves have heaped up as well. They probably thought it was pointless to keep cleaning them up, seeing no other option than to gather them all in a big pile. And looking at these countless, rain-soaked leaves, I suddenly realise that leaves aren't the only things heaping up.

As time goes by, it is inevitable that my longing for you, dozens of countries away from me, heaps up in my heart. One part of me is counting the days and willing November to be over, while another part of me already knows that my longing for this city will grow just as deep, sadly enough. Maybe we are the kind of people who long for each other more deeply with every day that goes by. That's why, today, I try to suppress that sense of longing, as I trample on the heaps of leaves before me.

## #6. 이방인



건물 저 끝에 누군가가 우두커니 서 있어요.  
가까이 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한 조각상이었죠.  
그의 몸은 험뎠은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우울하고 스산한 날씨 탓에 더 추워 보였어요.  
나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예요.  
도시엔 밤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  
나는 여전히 길 위를 서성이고 있어요.  
마치 조각상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겨울바람과 밤을 벗 삼아  
노리치의 기억되지 않을 보통날을 보내요.

## 6. Foreigner

Someone was standing near that building, motionlessly.  
When I came close, it turned out not to be a person.  
It was a statue, shaped like a human.  
Its body was naked.  
It wore no clothes.  
The gloomy weather made it look all the more chilly.  
I'm a foreigner here.  
When night falls over the city and everyone's family welcomes them home,  
I'm pacing up and down the streets.  
Just like the statue  
Having nothing on me  
Befriending the night and the wintry wind  
I spent an ordinary, unmemorable day in Norwich.



## #7. 오래된 냄새



노리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도시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냄새의 향은 참 독특해요. 아마도 그 냄새는 오래된 책의 냄새를 닮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곳이 이야기 도시라고 말해요. 전설 속 동물인 용에 대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수백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런던 다음으로 가는 도시였다고 해요. 런던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요, 소문으로만 들어도 거대하다 못해 비대해진 런던에 비하면 노리치는 화려함과과는 거리가 먼, 도시로서 은퇴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 도시에서 살다간, 혹은 스쳐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곳곳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새로운 냄새를 만들어내요. 헌책방과 대학 도서관에서 풍기는 책장 속 냄새에는 아직도 이 도시가 다 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어쩌면 훗날 내가 남겨 놓은 어떤 냄새도 우연찮게 이곳을 여행하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기 전에 나는 이 도시에 꼭 다시 오고 싶어요. 그땐 분명 내 손엔 당신의 손이 포개어져 있기를 믿어요.

## 7. Old Smells

Norwich has a particular smell. It's an aroma equally as unique as the city's long-standing history. Maybe it's reminiscent of the smell of old books. Some people call this place a city of stories. It's a place that fostered mythical tales about legendary dragons. A mere few hundred years ago, it was the most important city after London. I have never been to the capital, but based on hearsay London seems so enormous I would almost call it obese, while Norwich, by contrast, gives me the impression it has retired from its duties as a city, secluding itself from all grandeur. And yet, the stories of those who live here and even those who merely pass through seep into every street corner, continuously creating new smells. Many untold stories lie hidden within the smells wafting from the shelves of second-hand book shops and university libraries. Who knows, perhaps someday another attentive passer-by will discover the smell that I have left behind. Without letting too much time pass, I would like to come back here. And that time, I believe, your hand will be on top of mine.

## #8. 골목길



온종일 노리치의 작은 길들을 헤집고 다녀요. 당신이 내게 어디에 있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항상 길 위에 있다고 대답할 거예요. 볼품없는 작은 길로 들어서는 건 때론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우중충한 낮에도 그렇지만 밤이면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첫발을 내딛기 힘든 길, 비좁은 그 길에 두려움 없이 서고 싶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이 그렇듯, 아무리 작은 골목길도 또 다른 길로 이어질 거예요. 돌아보면 하찮았던 그 길도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여행하는 길,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삶의 길도 항상 아직 단절되지 않은 '어떤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싶어요.



## 8. Alleyway

All day long, I'm exploring the narrow streets of Norwich. Every time you ask me where I am, I answer that I'm out on the streets. It takes a bit of courage to set foot in these narrow, shabby-looking streets. This holds true by day, because the weather glum, but even more so at night, when the unlit streets are pitch-black. Of course, I can turn around and choose a different route, but I don't want to. I want to walk, fearlessly, through the narrow alleys, the ones where you think twice before taking your first step. As with all the roads I've ever walked, each and every alley, however narrow it may be, must lead to another. If I look over my shoulder, I'll realize that this shoddy little backstreet is only part of the process, one step along the way towards a better, more comfortable road. And so I remind myself that I'm always on the road to somewhere: the road we travel together, the road of the lives we live together has no dead-end.

## #9. 새겨진 이름들



영국인들의 축구사랑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노리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노랑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연고팀을 응원하는 건 그들에게겐 당연한 것이겠죠. 홈팀의 경기가 있는 날 사람들은 정말 그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소리를 질러요. 마치 동굴 속 고생대 공룡의 괴성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 소리에 상대팀은 기가 죽고 몸이 굳겠죠. 그들의 그런 애정은 비단 피치 위의 승부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경기장 주변 기둥과 외벽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이름들로 가득해요. 이름과 생몰연도가 빼곡히 새겨진 그 벽 앞에서 누군가는 경기전 끼니를 해결하고 누군가는 옛사람에 대한 향수에 젖어 아쉬움 짙은 키스를 건네요. 그곳에 적힌 이름들을 일개 이방인인 난 알지 못해요.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노리치에서 태어나 노리치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거나 노리치 태생의 가족과 이웃들일 거라 짐작만 할 뿐이죠. 살면서 기억하고 추억할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 이름을 벽에 새겨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져 주는 건 망자에겐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 노리치의 온 땅이 울릴 듯한 거대한 응원소리는 단순히 축구팀을 위한 게 아니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슬픔과 애환, 진심도 함께 포함된 게 아닐까 해요. 나에게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러서 그 그리운 이름에 가닿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 9. Carved-out Names

Even people who don't really care for football know how much the British love it. Even the Inuit who live around the North Pole must know, don't you think? The inhabitants of Norwich are no different. For them, it's a completely natural thing to cheer on their team, dressed in yellow. When the team plays at home, everyone continues to shout the entire day, as if their lives depend on it. Sometimes they sound like Paleozoic dinosaurs roaring from inside a cave. That way, they make the other team shrink back, their bodies freezing up. I don't think their devotion is only aimed at the match on the field. The pillars and outer walls of the stadium are filled with the names of people who have passed away. In front of these walls, engraved with names and years of birth and death, some have a quick pre-game meal, while others get carried away by nostalgia about someone they might have lost, blowing their name a mournful handkiss. As a mere foreigner, I don't recognise any of these names. I can only suspect that they mostly belong to people who began and ended their lives in Norwich or perhaps their family or neighbours. One is truly lucky to have someone remember them, commit them to memory. Isn't it the greatest honour you can possibly show the deceased to carve their name on a wall for everyone who knew them to touch it sometime? That's why, I think, the boisterous volley of cheers, seemingly sending an earthquake across the greater Norwich area before the match has even started, isn't only addressed to a football team, but also conveys the sadness, the joys and sorrows, the love they feel for the deceased. One day, I hope I can do the same for you. I hope I can cry out your name wherever I'll be, at whichever moment, going on until my voice cracks, and then touch it. I want to carve your name into my heart.

## #10. 노리치의 색깔들



이 도시에서 변하지 않는 색이 있다면 회색이에요. 대부분의 하늘빛이 그렇거든요. 망자의 뺨가루처럼 잿빛이거나 쳇 베이커의 음울한 음색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 말이죠. 하지만 그런 날씨와는 반대로 노리치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는 세상 어느 곳 못지않게 상냥하고 부드러운데요. 투박하고 강한 영국의 악센트를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일 거예요. 노리치를 대표하는 색을 노란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시 지역 축구팀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 이방인의 눈으로 본 노리치의 색을 감히 말한다면 정열의 무지개가 아닌 가 해요. 변화무쌍한 일곱 빛깔 무지개색이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월의 무지개를 기억하나요? 공원의 작은 분수가 만들어낸 무지개를 발견한 당신은 마치 네잎클로버를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삶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당신과 내가 살았던 각각의 시간은 분명 무지개 같았을 거예요. 노리치 사람들의 삶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긴 시간 회색 구름 아래 살면서도 그들의 웃음은 멈추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요. 책에서 배운 젠틀함보다는 인간적인 따듯함을 더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은 우리가 만났던 그 무지개처럼 어느 도시보다 밝게 빛나고 있어요.

## 10. The Colours of Norwich

If this city has a consistent colour, it must be grey. The sky is overwhelmingly grey here, you see. It's the kind of grey that brings to mind a dead person's ashes or Chet Baker's melancholy timbre. But in spite of the weather, the faces and voices of the people here are as gentle and tender as anywhere else. One shouldn't be misguided by their perhaps brusque English accent. Fervent supporters of the local football team might claim that the colour that best represents Norwich is yellow. But if I, a foreigner who admittedly spent very little time in this city, were bold enough to make a suggestion, I might put forward the rainbow. The seven peerless colours of the rainbow. Do you remember the rainbow we once saw by a small fountain in a park sometime in October? When you noticed it, you were so happy I almost thought you'd discovered a four-leaf clover. Then I realised. The lives we live are as diverse as a rainbow. The hours you and I have spent separately are definitely like two distinct stripes of the rainbow. I think the same goes for people's lives here. Even though they often have grey clouds hanging above their heads, they never stop smiling. They never forget to care for each other. This place, where people offer each other genuine warmth and kindness rather than the kind of courtesy you learn in school, radiates like that rainbow we once encountered, shines more brightly than any other city.

## #11. 예기치 않은 자유 앞에



얼마 전 웹섬 강변에 정박해 있는 작은 보트를 보았어요. 보트의 이름은 다름 아닌 'Freedom'이었어요. 자유라는 뜻이죠. 영어를 조금 배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예요. 하지만 실제로 자유란 단어는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요. 자유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명제 같은 것이예요. 풀기 힘든 수학공식처럼 단순한 영어 단어 그 이상의 뜻을 함축하고 있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란 정말 힘들어요. 언젠가 당신이 그랬죠. 나의 자유로움이 좋아 보인다고요. 무엇이 자유인지 나는 선뜻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가늠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건물들 사이로 날아가는 새를 보았어요. 저들도 사느라 바빠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 눈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로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당장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하는 대상에게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보트에 '자유'라는 이름을 적은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요. 현재의 삶이 정말 자유롭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유라는 유토피아를 향해 강줄기를 따라 어딘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였을까요. 나는 여전히 날아가는 새를 멍하니 바라봐요. 사람은 수백만 원씩은 지불해야 그나마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새들은 자발적인 날갯짓으로 공중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다른 자유를 시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나는 노리치에서의 예기치 않은 자유에 좋으면서도 당신에게 미안할 따름이에요. 미안해요.

## 11. Unexpected Freedom

Some time ago, I stumbled upon a small boat moored to the bank of the River Wensum. It was called *Freedom*, no less. Anyone who speaks a little bit of English would be able to recognise that word. But it is only through life that we come to understand, sometimes painfully so, how complicated its meaning really is. A concept that is impossible to define in a single word, that no money can buy, that no one person can manipulate. Akin to an unsolvable math problem, freedom suggests a significance that goes beyond the word itself. It is really difficult to explain. You once said that you liked how I looked free.

But what exactly freedom is, I can't say so easily. Which is why I can't tell if it's something good or bad. One day, I saw a flock of birds fly between two buildings. They were just going about their lives and flying off to some other place, but I liked how they looked. And I don't think I looked as free as them. Maybe we sense what freedom is when we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behaving in a way we ourselves wouldn't be able to. What could the owner of the boat have intended by naming their boat *Freedom*?

Did they mean that life is free or was it an encouragement to follow the river's course towards a utopia called 'freedom'? I still stare at birds flying by with my mouth agape. It makes me so envious that us humans have to pay millions of won if we want to get on an airplane and roam the skies, while those birds are gliding through the air with the help of their very own wings. Maybe, in a way, we're all jealous of each other's individual bits of freedom. Somehow, whilst enjoying an unexpected kind of freedom in Norwich, I just feel sorry towards you. I'm sorry.

## #12. 크리스마스 즈음에



유럽은 벌써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요. 서점과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노리치를 떠날 때쯤이면 우리에게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올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나탈(Natal)이라고 하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이곳저곳을 다니는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성탄절이라고 해요. 모두가 교회에 가고 성경의 이야기를 믿든, 믿지 않든 그날만큼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노리치에는 오래된 성당이 많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렇듯 이곳도 과거 가톨릭의 영향권에 있어서 그럴 거예요. 노리치의 집과 건물들은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집집마다 아직도 굴뚝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그런지 내 눈에는 굴뚝밖에 보이지 않아요.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노리치는 굴뚝의 도시처럼 보여요. 산타 할아버지가 꽤 바쁠 것 같지만 도시의 모든 집을 반드시 들를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깜짝 선물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한 해의 마지막을 며칠 앞둔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따뜻한 말과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정말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땀 뻘뻘 흐르는 적도의 크리스마스를 나는 사랑해요. 한겨울의 크리스마스를 겪어본 적 없는 당신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린 결국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 확신해요. 비록 그곳에 굴뚝은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들르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요. 당신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일 년 중 하루뿐인 크리스마스보다 더 행복할 테니까요.



## 12. Around Christmas

All over Europe, the Christmas spirit is permeating the air. My eyes often land on people buying Christmas cards in book shops or department stores. Around the time when I'll leave Norwich, it won't be long until our first Christmas together. In Indonesian, you call it Natal, don't you? In Korean, the day when Santa Claus goes around town handing out presents, is called Nativity Day. Everyone goes to church and whether or not they believe in the Bible, only for one day no one hates each other. Norwich has a lot of old Catholic churches. Like many European countries, I assume, it must have been under the Catholic sphere of influence in the past. The houses and buildings in Norwich have an old-fashioned quality to them. Every house has its own chimney. Maybe it's partly due to it being Christmas season, but I see nothing but chimneys around me. Norwich, a city whose history goes back hundreds of years, now looks like a city of chimneys. Although Father Christmas would be impossibly busy, everyone does expect him to visit each and every house in the city. Of course, it's not just about presents. Given that Christmas takes place only a few days before year's end, the whole family gathers to share their warmth and food with one another, and that might be Santa's true gift. Now it'll be Christmas soon. I actually love Christmas around the equator, in the sweltering heat. Though I do feel sorry for you, since you've never experienced a wintry Christmas yet. Soon we will finally get to share in each other's Christmas joy. And if Santa doesn't visit people's houses over there, for lack of chimneys, that's okay. Because the time we spend together, regardless of the time of year, will be happier than Christmas ever could.

### #13. 기차역



내 기억이 맞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기차역은 자카르타의 칼리바타 역이었을 거예요. 낡은 열차들이 굉음을 내며 새벽부터 우리가 머물던 아파트 사람들의 단잠을 깨웠던 그 역 말이에요. 그에 비해 노리치 기차역은 참 조용해요. 나는 기차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요. 그런데도 기차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기차는 있는 듯, 없는 듯 도시의 고요함을 따라 더 조심조심 철길을 달리는 것 같아요. 하루의 첫 기차가 슬며시 왔다가 살며시 사라져요. 그것은 그레이트 야머스로, 에클로, 북부의 맨체스터로, 케임브리지와 런던으로 사람들을 실어 날라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영국 남자들이, 큰 백팩을 멘 이민자들이, 나와 비슷한 머리색과 피부색의 동양인들이 기차의 안과 밖을 서성여요. 노리치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가끔은 칼리바타의 텅텅한 공기가 그리워요. 그것은 당신의 나라, 한여름의 냄새로 귀결돼요. 하지만 당신에게 가는 길은 그 그리움만큼이나 아직 멀기만 하네요. 노리치에서 출발하는 기차길은 자카르타까지 닿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니까요. 더구나 당신의 고향은 자카르타에서도 동쪽으로 한참 치우친 섬에 있으니 멀다는 표현으론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곳에서의 일이 마무리되면 난 당신에게로 가요. 기차가 달리듯 전속력으로 당신 품으로 돌아갈게요.

### 13. Train Station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the last train station we visited together was Jakarta Kalibata. A station where time-worn trains started rumbling early in the morning, stirring the surrounding apartment blocks and waking the residents from a good night's sleep. Norwich Station, on the other hand, is rather quiet. The place where I'm staying is not too far from the station, but I don't hear any noise. In line with the calmness of the city, the trains seem to move along the rails more cautiously, as if they were never there at all. The first train of the day departs just as stealthily as it arrived. Dashing off, the trains take people to Great Yarmouth, Eccles, Manchester, Cambridge and London. British men with cups of coffee in their hands, migrants with large backpacks, people from Asia with a similar hair colour and skin tone to mine, pace up and down, inside and outside the train. Sometimes, when I wait for my train, I miss the damp air of Kalibata Station. I remember it as the smell of Indonesia in midsummer. But the journey I have ahead of me before I reach you is as long as that sense of longing is deep. Of course, it's impossible to hop on a train in Norwich and make it all the way to Jakarta. And your hometown is on an island way off to the east, much further than Jakarta, so far that the word 'far' doesn't do it justice. And yet, as soon as I finish my work here, I'll go find you. I'll run back to you as fast as a train travelling at top speed.

#### #14. 경계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깊이 잠든 무덤의 통로를 따라 어딘가로 향해요. 나도 덩달아 발뒤꿈치를 세우고 그들을 따라가요. 산 자들은 산 자들의 목적지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종착지로 흩어져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음 목적지가 아닌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를 때가 다가와요. 갑자기 혹은 서서히...

산 자들의 발걸음은 화려한 쇼핑몰에 멈춰 서요. 대낮에도 수 백, 수 천 개의 전구들은 구름에 감춰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회색 도시를 밝혀요. 죽은 자들 앞마당엔 차갑게 서 있는 성당이 있어요. 그나마 성당의 촛불과 사람들의 온기가 그들의 시간을 단절시키지 않아요. 도시는 산 자와 죽은 자들이 각자의 시간을 충실히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거울이 되는 것이기에,

그럴수록 도시의 화려함은 더욱 빛을 발하죠. 언젠가 나는 당신과 함께 노리치 광장에서 춤을 추고 싶어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무엇보다 찬란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태양이 기우는 작고 소박한 곳에 함께 눕히고 싶어요. 산 자는 죽은 자로, 죽은 자는 산 자로 되풀이 되는 삶의 경계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는 오후예요.

#### 14. On the Border

People walk through the aisles between graves, in each of which someone lies deeply asleep. I lift my heels and follow them. Those who are alive scatter to wherever they are headed, those who are dead to wherever their journey terminated. Our time is not endless. The moment your next stop turns out to be your final destination inches ever closer. It can be slow, it can be sudden...

The living halt at a luxurious shopping mall. Hundreds, thousands of light bulbs outshine the sun behind the clouds, illuminating the grey city. By the graveyard, a lonely church stands in the cold. Neither the candle light of the church nor the warmth of the people in it cuts their time short. This city seems to make sure that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get to spend their time in full. For the dead to become a mirror for the living,

the city's luxury shines all the more brightly. One day, I want to take you to a square in Norwich and dance with you. Freer than anyone, more dazzling than anything. And when we breathe our last, I want to lie down side by side, somewhere small and simple, where the sun shines slanted. On an afternoon when the border between life and death is one and the same, the living crossing over as the dead and vice versa.



## #15. 차이



지금 당신의 시계는 몇 시인가요? 노리치 시청의 시계탑이 오후 3시를 가리켜요. 우리 사이에는 무려 8시간의 시차가 있어요. 서로의 소식을 전하기엔 녹록지 않은 것이죠. 이곳은 당신이 속한 시간보다 8시간이 느린 곳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8시간을 빨리 살고 있는 셈이죠. 나는 매일 당신의 시간을 쫓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오후를 살면 난 오전을, 당신이 저녁 밥을 먹을 때쯤이면 난 점심을 먹어요. 핸드폰 첫 화면에는 두 개의 시간이 다른 숫자로 쓰여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어서 빨리 합쳐지길 바라요. 수만의 시간이 겹쳐져 하나의 시간으로 표현되는 그날을 나는 손꼽아 기다려요.

나는 당신이 없는 오후에 있어요. 노리치의 오후 3시가 그렇게 헛헛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부재한 시간은 늦가을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만큼이나 쓸쓸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시계는 몇 시인가요?

## 15. Difference

What time does your watch say it is? The clock on the outside of Norwich City Hall points at 3 pm. The time difference between us is no less than eight hours. It's absolutely marvellous for keeping each other up to date. Here, we are eight hours behind you. In other words, you're living eight hours ahead of me. Every day, I'm chasing after you.

When you're halfway through your afternoon, my morning is just about to start and around the time you're having dinner, I'm having lunch. On my phone's home screen, two times are written side by side. I just hope that our time zones will merge soon. I'm waiting impatiently for that day, when countless hours will overlap and become one.

I'm spending another afternoon without you. How can Norwich be so empty at three in the afternoon? Hours when you're away feel like pure loneliness, like autumn leaves falling in masses.

So what time does your watch say it is?